
시청자 의견수렴 보고서

2014/01/01~12/31



시청자심의팀

OBS 시청자 의견수렴 보고서

1.기 간 : 2014.01.01~12.31

2.실 적 : 총 27건 (단순문의 제외)

-부문별

부 문	보 도	교 양	오 락	다 큐	홈페이지	기 타
건 수	14	8	1	2	0	2

-형태별

형 태	전 화	인 터 넷	우 편·FAX	비 고
건 수	10	17	0	-

3.의견 전문 및 반영결과 내역

No	부문	세부내용	반영결과
1	보도	<p>*의견제시자 : 박*길</p> <p>*프로그램명 : 뉴스 외</p> <p>아시안게임 중요하다. 주관방송사는 아니지만 잘 활용해야한다. 뉴스, 기획프로그램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이다. OBS가 특히 아시안게임 부분을 중앙언론매체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다룬다면 방송의 G마켓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p>	<p>*답 변 : 보도국</p> <p>*반영결과</p> <p>지난 10월2일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리포트 10여개 뉴스보도를 낸 바 있다. 기획프로그램으로 1월 중순 토론회 개최 반영하였다. 주요일정에 맞춰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p>
2	보도	<p>*의견제시자 : 서*훈</p> <p>*프로그램명 : (의견개선)</p> <p>요새 가장 예민한 것이 어린</p>	<p>*답 변 : 보도국</p> <p>*반영결과</p> <p>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폭행 학</p>

		<p>이집 문제, 안 그래도 경인지역이 서울에서 외곽으로 벗어나 맞벌이부부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다. 경인지역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엄벌만이... OBS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 가정했을 때 해결책...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일벌백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눈을 좀 돌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보도 해주셨으면 한다.</p>	<p>대 근절부분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그 이후에도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점 등 뉴스&이슈 쪽에서 한국복지대 이성록 교수와 해법 제시한 적이 있다. 인천경찰청장 모셨다. 관련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다. 경찰청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이슈 따라가는 중심으로 갈 예정이다. 열심히해보겠다.</p>
3	교양	<p>*의견제시자 : 김*문 *프로그램명 : 체인지 라이프<닥터&스타> 체인지 라이프 진행자 외 6명 의사 나온다. 그 중 성형외과 의사 3명이다. 다양한 형태 의사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 이상의 성형외과의사는 부적절해 보인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다양한 의학 분야의 전문의를 섭외할 수 있도록 즉각 반영하겠음. (정형외과, 한의사, 치과 의사 출연)</p>
4	보도	<p>*의견제시자 : 박*석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타사에서는 인천경기지역 1차 피해지역이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국가든 지자체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기획 취재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OBS 모니터 해보니, 날씨에서만 미세먼지를 언급하고 있다. 경인지역 미세먼</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피해사례 등 특별한 점이 없어 수도권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스M에서 11차례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봄철 황사피해 등 적극 취재 보도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p>

		<p>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등을 OBS에서 보도하면 좋을 것이다.</p>	
5	보도	<p>*의견제시자 : 유*주 *프로그램명 : 오늘의 월드 뉴스 OBS뉴스 킨텍스 관련 취재 보도 시, 외국인의 인터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번역 자막이 나오지 않았다. 약 30초 가량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다. 주의해야 할 점이다.</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이 부분은 명백한 실수였다. 인터뷰 자막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기사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진 일이다. 해당 기자에 엄중 경고 재발방지 촉구하였다.</p>
6	보도	<p>*의견제시자 : 박*원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지역성 계속해서 만들어가니 좋다고 생각된다. 지방선거 관련하여 지역이슈를 쟁점화 하여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현재 격전지를 다루는 코너 경인지역 이슈 지역을 찾아가 후보 공약 민심 소개하는 코너 운영 중에 있다. 지역일간지 정치부 선임기자 출연시켜 OBS가 처리하지 못했던 선거부분을 심층적, 후보자 공약 비교 등 할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등 추이를 지켜봐야한다. 재난 보도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선거 국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p>
7	교양	<p>*의견제시자 : 송*인 *프로그램명 : 건강 토스쇼 <맘스 닥터> <맘스닥터>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다. 주부 40-50대 겨냥한 프로그램이다.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OBS 프로그램 중에 <TV주치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차별성, 전문성에 강화를 해야 한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TV주치의와의 차별화 부분은 일단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다. TV주치의는 15분짜리 단일 정보 제공하는 것이고, 맘스닥터는 기획단계에서 종합 진료라고 보실 수 있겠다. 의사가 나와 질병의 원인 치료법 등 고식적으로 전개된다면 맘스닥터는 사</p>

		고 생각한다.	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방식을 토론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차별화에 노력하겠다. 이상이다
8	다큐	<p>*의견제시자 : 조*덕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세월호와 관련하여 심층 기획, 특집 다크를 만들어서 인천 경기지역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연들을 방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2014.04.16 세월호 참사, 그 후> 5월11일 방송완료 하였다.</p>
9	보도	<p>*의견제시자 : 강*초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해 보인다.</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4시45분에하는 <뉴스&이슈>, <뉴스M>에서 광역단체장 교육감 포함하여 뉴스M 최소 10분정도 출연하였다. 뉴스&이슈에서는 단체장 10분정도 소화하였고 나머지 10분정도 섭외를 하고 있다. 섭외가 안 되면 초대석에 대체할까 검토하고 있다. 경인지역 집중하여 단체장 생각 정책 등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고 있다.</p>
10	보도	<p>*의견제시자 : 이*희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세월호 심리치료 의사들이 너무나 심정적인 동조는 안보이고 기계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태도로 의사 보이콧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보도차원에서 실제 언론방송사에서 좀 지나가면</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6월 30일자 김민주 기자 안산에 배치하여 집중 취재하였었다. 보도하였다. 지적해 주신대로 시스템이 허술하였다. 정확히 짚었다. 내일이 세월호 100일이다. 뉴스 비중 절반이상 높여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말씀해주신 부분도 더 꼼꼼히 보도</p>

		<p>관심이 없어질 것이다. 치유 프로그램...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미안해하고... 실종된 사람은 아직 안 나온 사람들에게 미안해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무적이고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다. 관련하여 우리의 치료 치유의 시스템이 허술하다. 돈은 돈대로 쓴다. 사회적으로 정확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된다. 돈을 쓰는데 잘못 쓰고 있다. OBS가 경인지역 사건이므로 단순히 수치의 의미가 아닌 깊숙한 치유 치료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p>	<p>하기 위해 취재 중이다.</p>
11	보도	<p>*의견제시자 : 박*병 *프로그램명 : <OBS뉴스M> 보도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는 전교조 관련 내용이 이슈되고 한편으로는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 되어 정부와 충돌되는 부분으로 중립성을 가져 보도해야한다. 전교조 관련 부분 보도시 인터뷰 3개 새누리당 발표 내용 등을 다루어 OBS가 전교조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였다. 학생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니 심층취재 필요하다.</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전교조 보도 관련 내용 지적 해주신 부분 시점으로 기사가 새누리당 의원이 한 번 더 나가고 새정치 민주연합 1번 나가고... 기계적으로 1:1 유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더 나갔는지 확인해보니 질의했던 부분이라더 방송되었다. 타당한 지적이다. 현재 균형 잘 맞추고는 있다. 향후에 정치적인 보도 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다.</p>
12	다큐	<p>*의견제시자 : 이*희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관련하여 성 쌓는 방어 기술 등을 높이 샀다고 하</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저희가 경인지역 쪽 돌고 있는 로드다큐 만남에서 남한산성 다뤄볼까 하고 있다. 회사 측에</p>

		<p>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큐 그런 쪽으로 다루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p>	<p>서도 역사관련 경인지역 서울 등 수도권 역사 유적지 프로그램 기획해보려고 한다. 발맞춰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경인지역 역사 인물 등에 대한 역사 프로그램 기획중이다.</p>
13	보도	<p>*의견제시자 : 박*규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인천이 떠말을 빛... 경기장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빛을 갠아나갈 것인가...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이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 부채상환에 대한 내용과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큰 상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방송하면 좋겠다 생각 들었다.</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장내 아나운서선발대회, 숙박문제 등 시각 달리하여 보도하고 있고, 사후에 인천 부채문제 등 현재 취재 중이다.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내보겠다.</p>
14	보도	<p>*의견제시자 : 강*경 *프로그램명 : <OBS뉴스M> 뉴스부분 최근에 진보교육감 취임이후 이야기...안산 동산고 자사고에서 취소된다. 대비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서울에 대거 몰려있다. 서울에서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단신정도 처리밖에 안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제이오니 양측 입장, 교육청, 학교입장 고루 다루어주었으면 한다.</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자사고 교장들이 교육감 교체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 취임 이후 자사고와 갈등이 깊어져 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보도하려한다.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등 균형있게 정리하려고 애썼다. 최종적으로는 교육부가 권고해서 유지해라 결론 났다. 여기에 대해 내년도 인원 선발 갈등이 예상 된다. 지적하신대로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다.</p>
15	보도	<p>*의견제시자 : 나*상 *프로그램명 : <OBS뉴스</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p>

		<p>945></p> <p>OBS뉴스945 여자 앵커분이 방송하고 있는데 남녀가 섞여있으면 좋을 것 같다. 좀 늘어지는 부분 아쉽다. 템포가 늘어난다. 다이내믹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15분 뉴스, 2앵커 운영 좋겠지만 인력운용한계가 있다. 취재기자 충분하면 역동성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앵커 투입 인력부분도 어려움이 있다. 마감뉴스 25분 운영하는데, 2앵커 검토 하고 있는 중이다. 메인뉴스와 4시45분 뉴스 이 두 개만 2앵커 시스템인데 하나 더 하면 마감뉴스가 좋지 않겠느냐 편성과 의논 중이다. 이상이다.</p>
16	교양	<p>*의견제시자 : 최*찬</p> <p>*프로그램명 : <명불허전></p> <p>명불허전 재미있게 보고 있다. 진행자 논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니다. 출연하고자하는 명사에 개념을 어떻게 두고 봐야하는가.. 최근에 문화계 인사들 많이 나온다. 경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사들도 있지 않을까.. 명사에 대한 부분을 OBS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 재미 등도 있지만, 명사의 정의를 OBS에 맞게 내리는게 어떤가 생각을 하였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p> <p>*반영결과</p> <p>경인지역의 한정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OBS초대석이라고 해서 경인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따로 초대하여 보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인지역 분들도 하긴 한다. 대놓고 경인지역이라고 못하는 것이지만 출연자들 보시면 30%이상은 경기도 출신들이 많으시다. 지역성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도록 하겠다.</p>
17	오락	<p>*의견제시자 : 이*우</p> <p>*프로그램명 :</p> <p>예능 프로그램의 직접 제작이 어렵고, 지상파 종편 프로그램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예능 전문 PP 프로그램 구매하는 것 어떨지 제안 드린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p> <p>*반영결과</p> <p>프로그램 구매 검토하고 있다. 드라마 편성도 하고, OBS의 경우 해외다큐 등 다큐에 많은 관심이 있다. 다양성 폭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다.</p>
18	보도	<p>*의견제시자 : 전*진</p>	<p>*답 변 : 보도국</p>

		<p>*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와 있다. 평소생각이다. 플랜카드 아시안게임 소개가 아닌 일반 플랜카드가 무분별하게 많이 걸려 있다. 가로 환경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걸 다루어주면 아시안게임 앞두고 손님맞이 차원에서 좋은 보도가 될 것이다.</p>	<p>*반영결과 체크하고 있었다. 아시안게임 운영미숙 많다. 도박판 벌이는 것 단독 취재하였다. 다양한 문제 지적 중에 있다.</p>
19	교양	<p>*의견제시자 : 김*진 *프로그램명 : (편성의견) 멜로다규 <가족>, 로드다규 <만남> 연속편성하고 있는데, 크로스 편성이 어떤가 제안 드린다. 포맷은 비슷하다.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다. 같은 걸 계속 보니 지루하다. 타이틀 다르고 포맷 다르니 크로스편성도 효과적일 것 같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11시대 12시대 시청자 끌어들이자 하고 있었는데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같은 색깔의 프로그램 크로스 편성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10월6일 개편에 적극 반영하였다. 크로스 편성해놓는 형태로 반영하였다.</p>
20	기타	<p>*의견제시자 : 이*열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로고 자막 전체 CG부분이 타 채널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화질도 보니 외주제작이라 그런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인력, 장비 등 장비문제가 크다. 지적재산권 문제 등도 걸려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료가 올라가 있다. 미술팀에 연구 개발팀 운영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이다.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보겠다. 이상이다.</p>
21	보도	<p>*의견제시자 : 안*찬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여러 가지 문제 점 인천이 가지고 있</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말씀하신 내용 반영하여, 10월8일 60분 편성하여 '2014 인</p>

		<p>는 국제적인 이미지, 한번 짚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성과와 한계가 원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하는지 기획 해주면 좋겠다.</p>	<p>천아시안게임 성과와 과제’ 방송하였다.</p>
22	교양	<p>*의견제시자 : 최*승 *프로그램명 : <꿈꾸는U> <꿈꾸는U> 감독이 나와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가 한명이 아니라 두 세명 나와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지루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 퀄리티 높은 영상들이 나와 좋았다. 인터뷰 내용을 다이내믹하게 가면 좋겠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꿈꾸는U에서는 소재 2-3개를 소개한다. 내용은 노인문제, 송도 학군영화제, 29초 영화제 등 다양하게 받아 제작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제작비는 전파진흥원에서 제작지원금 받아 제작한다.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소명을 가지고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루하지 않도록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도록 하겠다.</p>
23	교양	<p>*의견제시자 : 박*안 *프로그램명 : <닥터&스타> 교양프로그램 할 때는 표현이나 진행에 있어서 신경써야한다. 피부노화 등 이야기하니 피부과 의사가 ‘흉조를 레이저를 때리면 치료가 된다.’ 이런 표현... 그래도 몇 번을 나왔던 간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 수 있구나 걱정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의사분들이 교양프로그램 진행방식 표현 등을 살펴보셔야 한다.</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프로그램 성격상 출연자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다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으로 의사들의 수다정도로 볼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종영되었다. 현재 다른 의학정보 프로그램도 방영하는 것이 있으니 해당 PD에게 전달하여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p>
24	보도	<p>*의견제시자 : 김*주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판교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홈페이지 속보성이 떨어진다</p>

		<p>정도 되었다. 10월17일 판교 포미닛 공연 중 환풍구 붕괴 사망 사건 뉴스 접하면서 OBS 속보 처리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봤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뉴스가 얼마나 빨리 업뎃 되는지.. 사건발생은 오후 5시쯤이지만 6,7시때 까지 속보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 이후 메인뉴스에서 유재명 기자 단신보도하였다. 8시가 대된 시점, 사고로부터 3시간이 흘러간 이후였다. 홈페이지에는 뉴스가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타사검색해보면 종편 지상파 쪽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 인원이 나온 상태였다. 동시에 업뎃되지 않는 부분들 문제가 있지 않나. 속보 한줄 업로드 후,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는 내용 올리는 것 사소하지만 중요하다. 속보를 내야할 때는 홈페이지에 빨리 업뎃 되었으면 한다.</p>	<p>는 점 인정한다. 인터넷 뉴스 담당자 추가 배치하고, 속보 업데이트에 대한 재교육 실시하였다. 연합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바탕으로 1보하고, 자체적으로 2보를 하려고 한다.</p>
25	기타	<p>*의견제시자 : 정*자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어플에서 보면 뉴스VOD 나오는데 전체 뉴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전체 VOD보면 한번만 누르면되는데 다 하나씩 눌러서 봐야하니 불편하다.</p>	<p>*답 변 : 보도국 *반영결과 말씀하신 내용 100% 이해하였고, 즉각 시스템 변경하였다. 전체뉴스를 하나 뒤서 한번 누르는 것으로 전체뉴스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경인뉴스라인, 경인투데이, 뉴스&이슈, OBS뉴스M 4개 뉴스는 전체뉴스 시청 가능하다.</p>
26	교양	<p>*의견제시자 : 정*선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p>

		<p>수능시즌에 맞는 기획프로그램 기대해본다.</p>	<p>대학 관련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경기교육청과 1000인의 원탁토론'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방송하였다. 내용은 이재정 교육감이 출연하여 1000명의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란 무엇인가... 프로그램 특집으로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입시철에 맞는 기획 프로그램은 하려고 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있다. 생각보다 학교라는 조직이 보수적이고, 새로운 것이 집행되는 게 어렵다. 송의여대, 세명대 등 몇 군데 학교는 특성화 학과 소개 등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캠페인 등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 특강, 이번에는 송의여대 총 8회 2주 동안 청춘 희망을 이야기하다 리더쉽 특강 촬영하여 방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입시철 맞아 사교육 쪽에서 입시지도 관련된 것 각 학교별로 초대하여 장을 만들어볼까 기획하고 있다.</p>
27	교양	<p>*의견제시자 : 송*석 *프로그램명 : (의견개진) '2015 경기 민속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화예술이 팍팍한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경인지역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OBS가 문화 쪽에서도 내용면에서도 연예뉴스 이후</p>	<p>*답 변 : 편성제작국 *반영결과 지난 11월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OBS 초대석에 출연하셨다. 올해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역사프로그램 준비 중에 있다.</p>

	에 문화적 이야기 발굴하여 내 년에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	
--	-------------------------------------	--